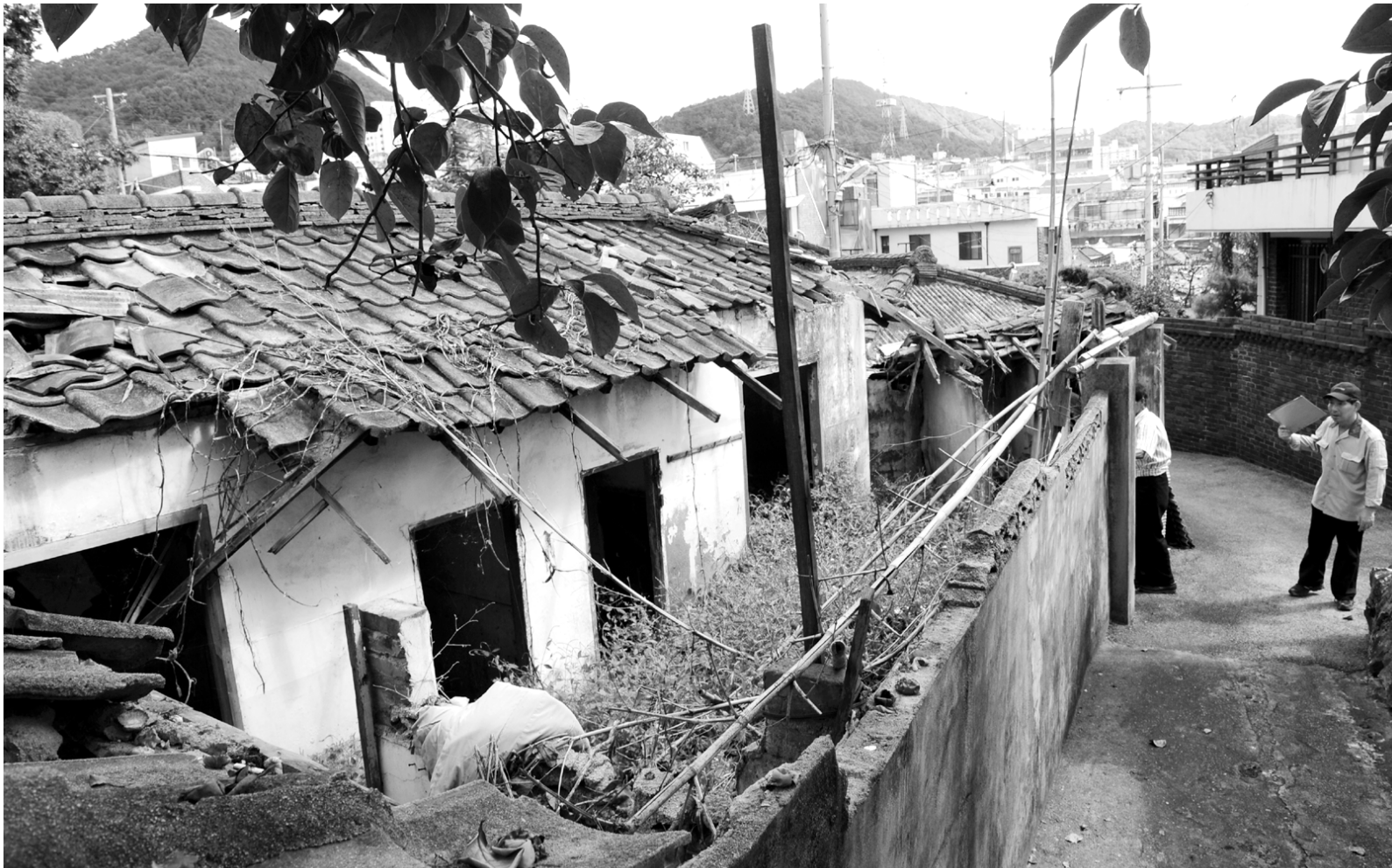


사회



지난 19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호두메 마을 주민들이 폐가로 전락한 빈집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70채 중 60채 폐가... 광주 산수동 호두메 마을 가 보니

도심속 유령마을 대낮에도 으스스

남은 10가구 “우범지대 불안... 대책 마련해 주오”

지난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 산수동 5동 5통 ‘호두메 마을’ 입구. 마을 모습 이 호랑이 등처럼 생겼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지금은 도심속 폐촌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마을에 들어서서 1m도 안 되는 좁고 굽이진 골목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빈집들이 눈에 띄었다. 빈집들은 담벼락을 경계 삼아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한 집에 들어서자 마당에는 잡풀이 무성했다. 집안 곳곳에는 빈병·캔·못쓰게 된 가구와 이불 등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악취도 진동했다.

천정은 옷자란 나무(높이 2m 이상)들이 뚝고 올라가 행하구 구멍나 있었다. 도저히 사람이 사는 집의 모습이 아니었다. 집터만 남은 채 건물이 사라진 곳도 있었다. 인기척도 전혀 없었다. 벌건 대낮이었지만,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와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가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호두메 마을은 엄연히 도심 한복판이다. 이 마을 입구는 왕복 4차선 도로로 2층 주택 밀집지역이다. D아파트와 호두메 마을과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100m. 하지만, 이 마을의 모습은 과

연 이곳이 광주의 도심인지 눈을 의심케 했다. 빈집을 포함해 남아있는 주택 수는 70여 채. 이중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10채 뿐이다. 나머지 모두 비어있는 폐가다. 10년 전부터 동네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면서 이 곳은 유령마을(?)로 변했다. 주민 일모(76) 할머니는 “대문이 없는 집들이 많은데, 고철 전문 절도범들이 훔쳐간 것”이라며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떠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마을이 폐촌으로 변모하자 주민들은 두 달 전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마을 통장 박모(58)씨는 “우범

지역으로 전락된데 이어 여름마다 불법 투기된 각종 쓰레기 때문에 여름마다 모기·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청에서 인구 유입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여건부터 갖춰달라는 게 주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라고 돈을 높였다. 하지만, 동구청은 2008년 12월 광주시에서 ‘202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지역을 선정했는데, 재개발 면적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수렴권과 결정권은 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 영·유아 5명 사망”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일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철 카슨 홀에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원인 미상 폐질환에 걸려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영유아 6명과 산모 2명의 피해사례를 발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3개월 동안 매일 수면시간에 사용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원인 미상 간질성 폐질환 등 10가지 폐질환에 걸린 A군(27개월)이 입원한 지 2개월 만에 사망한 것을 비롯해 15~44개월 영유아 5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폐질환 환자가 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39개 초교 이웃에 성범죄자 산다

반경 1km내 거주

광주·전남지역 초교 14곳과 25곳의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등이 최

근 김선동 국회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성범죄자 실제 주소지 기준 학교 현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실제 주소가 있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80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학교 5882곳의 13.7%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범죄자 가운데 10명 중 13.4명이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살고 있어 제2, 3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의 경우 전체 초교(147개교)의 9.5%에 해당하는 14개 학교, 전남은 전체(429개교)의 5.8%인 25개교가 포함됐다. 전국 시·도별 비율은 인천 36.2%, 서울 32.7%, 부산 22.6%, 경기 19.8%, 울산 16.8%, 대구 15.3%, 광주 9.5%, 충남 8.1%, 전북 7.5%, 제주 7.4%, 대전 6.4%, 전남 5.8%, 경북 5.3%, 경남 4.8%, 충북 2.3%, 강원 0% 순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진료기록 허위 작성·서류 조작 보험금 챙긴 병원장·환자 검거

고의 차량 부딪친 20대 구속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챤 병원 관계자들과 가짜 서류로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고의의 차량에 부딪쳐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0일 부당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고,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광주 모 병원 김모(69)원장과 신모(43)원무과장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 원장 등으로부터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탄 환자 2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서 정형외과를 운영중인 김 원장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입원 치료 불필요한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 등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환자들은 김 원장과 짜고 필요없는 입원·통원치료를 받아 총 85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26개 보험사에 청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 원장 등은 낙후된 시설로 환자들의 발걸음이 끊기면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순천경찰도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서모(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골목길을 지나가는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뚝을 부딪친 뒤 총 525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순복음 조용기 목사

배임혐의 고발 당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은 지난 19일 오후 조용기 목사와 조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에 참여한 한 장로는 “조 목사가 담회장 시절 교회 돈을 가져다 장남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는 짙은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또 이양은 최근 친구에게 “자살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 진술을 토대로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최씨 등이 지난 8월 말부터 최근 사이 말았이 집에서 1년 뒤 지난 17일 옥탑방을 얻어 함께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연합뉴스

동부경찰 확인

광주에서 발생한 ‘옥탑방 동반자살 사건’(광주일보 9월20일 6면)의 사망자들은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0분께 광주시 동구 급동 한 주택 3층 옥탑방에서 연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4명의 남녀 가운데 유일 한 생존자인 최모(32·목포시)씨는 “인터넷을 통해 만났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최씨는 김모(34·인천시)씨와 이모(여·19·청주시)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10대 추정) 1명 등 3명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가 집주인(66)에게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최근 사업에

실패해 거액의 빚을 진 뒤 괴로웠으며, 돈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역시 과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해 채무 때문에 고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교 3년인 이양은 평범한 학생이었으나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최근까지 자주 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은 옥탑방에 ‘마지막까지 거짓말하고 자라할만한 한 생존자인 최모(32·목포시)씨’는 경찰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최씨는 김모(34·인천시)씨와 이모(여·19·청주시)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10대 추정) 1명 등 3명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가 집주인(66)에게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최근 사업에

11년간 부녀자 10명에 ‘못된 짓’

북부경찰, 40대 붙잡아

광주 주택가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삼승성폭행을 일삼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20일 부녀자들만 을 대상으로 삼승성폭행한 이모(42)에게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7일 오전 6시에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사는 김모(여·30)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김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01년부터 최근까지 부녀자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주택가에 사는 부녀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새벽 시간에 잠금장치가 풀린 베란다 방범창을 통해 몰래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자전거 훔치다 주먹 휘둘러 철창행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치던 40대가 자신과 맞닥뜨린 자전거 주인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서행. ○...20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조모(47)씨는 지난 17일 오후 여수시 수정동 한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자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만취 상태였던 조씨는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자행패를 부렸다가 결국 구속.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Advertisement for Kim Young's university entrance preparation course. It features large text: '= D-day 100일 출제유형을 잡아야 합격이 가까워진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권',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10월 4일'. It also lists '상위권 대학편입 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 (대학별 출제경향 완전정복)', '자연계열 편입합격 열쇠, 지방유일 실강의 편입수학 - 공학수학 이론/문풀', and '2013 편입영어 첫걸음 편입영어 (왕초보를 위한 문법/ 어휘이론)'.